어느 것 하나도 마음 빼놓고는 없는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내 마음과 부처님의 그 뜻을 같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둥글게 놓고 진실하게 참배를 하고 지극하게 초를 켜고, 밝은 마음을 비유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을 한 그릇 떠 놓더라도, 즉 말하자면 다기를 모셔 놓더라도 그 다기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빼놓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마산의 여러분께서 생활 자체를 그대로 참선으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행선 입선 와선 좌선, 이것이 한데 합쳐서 그냥 여여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없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전에도 그랬죠? 남편 노릇을 했다가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어!" 그러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말도 아버지의 말이 나가고 행도 아버지의 행이 나가고 뜻도 아버지의 뜻이 나간다. 그렇게 하듯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을 하고 "여보게!" 하면 사위 노릇을 하고 "형님!" 하면 벌써 형님 노릇을 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 마음에 의해 바뀌어서 화해서 나투는 그런 살림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 생활 자체도 그렇게 나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을 보되, 즉 말하자면 자기가 봤다고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주인 놈이 다 하는 거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가고 오게 하고 이러는 거죠, 다.

누가 몸이 비참하게 아프다 해서 관하라고 가르쳐 줬죠. 그랬는데 직코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나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허! 심부름을 시키는데 서류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 그 서류 작성이 다 됩니까, 어디? 그와 같이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야만이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벗어날 수 있어야죠. 즉 말하자면 관습이나 업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세생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을 그냥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신통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우리가 살림하는 자체가 그대로 오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오신통이라고 한다고 해서 통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두리번두리번 찾지 마시구요. 허허허….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다음 생에, 미래에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미래라고 하지만 다음이 오늘입니다. 도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생이 오늘, 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집니다.

방편으로 하나를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던 무당들이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 너!" 이러죠? 그렇게, 하여튼 지옥에 갈 일을 했다면 지옥고가 벌어지겠죠. 오간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땅속에서 꿈틀대면서 국내 밥내도 못 맡는 것이 그게 아귀지옥도 되지만 오간지옥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옛날얘기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고 어저께 일을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다면 살인 납니다. 사람이 독사같이 살았다면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많지만 하나로 규정을 지어서 방편으로 해 봅시다. 우리 모습이 그렇게 개 모습으로 나오면 개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뱀으로 나오면 뱀 대접밖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축생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말입니다.

누가 몸이 비참하게 아프다고 해서 관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직코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나 줬다 뺏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지 개로 탄생을 했더랍니다.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가죠. 개로 탄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 전자에 형제였고 부모 자식지간이었는데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개로 인연이 돼서 새끼로 태어나서 컸는데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개란 놈이 '야! 언제적에 그렇게 모른다 했고 언제 적에 그렇게 너만 살았어?' 하고 막 짖으니까 "이놈의 개가 왜 이렇게 짖어?" 그러곤 그냥 발길로 탁 차더랍니다. 하하하…. 그러니 아무리 '내가 아무개라, 내가 아무개라, 내가 이렇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개 모습을 쓴 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전자에 살던 의식만 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짖어도 짖어도,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사유를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개 모습을 쓰고 나왔으니까 개 대접밖에는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개로만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왜, 옛날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습이 붙어 가지고 그 모습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닭이라면 닭의 짓을 하던 습이 있어서, 뱀이라면 뱀의 짓을 하던 습이 있어서, 그 습이 붙어 가지고 그 모습의 무명을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백 세를…, '오백이다' 하는 거는 아주 세세생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무명을 벗고 턱턱 털고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 환생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인간 환생이 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으니 그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생각을 잘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야지 한 생각을 잘못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긁어먹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죠. 빠뜨리고 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냐' 하고 울고불고 아무리 해 봤던들,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그래 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를 우주라고 해도 되고 국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또 지원의 스님네들한테 모르는 건 물어서 항상 잘 관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49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그 뜻을 말로는 다 감사하다고 못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일체 중생들, 풀 한 포기도 곤충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죠.

곤충이라고 깔보지 마세요. 자기 배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입니다. 자기 육체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온 곳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를 좀 더 넓혀서 둘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면 둘 아닌 도리가 착 나올 것이나, 요 한 그릇 안에서만 본다면 너 나가 아주 뚜렷하게 갈라져 있으니까요, 천차만별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관하는 법을 세밀하게 잘 아셔서 내가 급할 때 실천에 옮겨 보세요.

생활하시면서 아프든지 애고가 오든지 어떠한 것이 오든지, 그거를 고(苦)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료로 알고 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고를 안다면 고를 없앨 수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로 알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아, 이거는 내가 마음의 관법을 공부하라고, 마음공부를 하라고 이 재료가 나한테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재료를 다 거기다가, 용광로에다 넣고 재생돼 나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한다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자기 주인공을 '이게 뭣고?' 하고 무의미하게 두리번두리번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1(남) 사람마다 불법에 드는 인연이 다르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 동안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년 전부터 불법을 만나게 돼서 제게 닥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 큰스님의 밝은 가르침 덕분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 사고를 당하거나 또 오랜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생각을 어떻게 지니고 다스려야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이 나투시는 법을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못 보실 겁니다.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못 보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천지와, 즉 말하자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직결돼 있는 그 마음, 가설이 돼 있는 직결처에다가, 즉 자기 안테나에다가 모든 거를 놓았을 때, 아픈 것도 '너밖에 낫게 할 수 없어.' 하고 거기에다 놨을 때는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순간 한 찰나에 약사로 나투어서, 즉 말하자면 낫게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이 돼 있음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이 응신으로 나투어서, 즉 그냥 약사로 화해서 나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같이하는 거죠. 둘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낫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뜻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그 심오한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 때에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할 때에 바로 부처님의, 일체제불의 마음은 한 찰나에 드십니다. 이거는 그릇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야만이, 즉 깨친 사람이라야만이 찰나찰나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코스로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관하신다면 그대로 약사로 화하셔서 거기 응해 주십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7월 2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돈 꺼내는 도구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